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 강화

민주 윤준병 의원, 해사안전법 등 4건 대표발의 지난달 국감 질의·지적 따른 후속조치 일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 즉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낙시관리 및 육상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입법을 추진한 것.

음주운항 규제 관련해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서는,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하여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화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선 및 도선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낙시관리



윤준병 의원

및 육상법 등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책이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들을 세분화함으로

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과 예방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덧붙여, 선박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다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을 운항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하고,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음=김대환 기자

도의회 회복위, 사회서비스원 환경연수원 찾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6일 전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자연환경연수원을 찾아 도내 복지·환경 분야를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전주시 우이동 소재의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먼저 방문하여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시설 내부를 둘러보는 현장의정활동을 펼쳤다.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및 전북형 특화 서비스 발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어서 위원들은 무주군 덕유산국립공원에 위치한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으로 이동하여 현황 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연수원 내외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시설과 안전 상태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은 지난 1989년 설립 이래로 전라북도의 학교·사회 기업의 환경교육 허브 역할을 목표로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북도 사회서비스원과 자연환경연수원은 도민들의 복지 증진과 환경교육의 확산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위원회는 도내 환경복지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애로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6일 익산시 무왕로 사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하라”

민주 전북도당, 범국민서명운동 나서... 시민 발언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6일 익산시 무왕로 사거리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전북 범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이병철 전북도의원 겸 전주시를 지역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김성수·김술지·황영석 도의원 등 민주당 소속 선출직공직자와 당원, 익산시민 등이 함께했다.

미이크를 잡은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영문도 모른 채 참사를 당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왜 그들이 희생당했는지, 막을 수 있는 방

법은 없었는지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이어 "다시는 이 땅에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선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북도민이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합니다'라는 성명서 발표와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발언도 이어졌다. /뉴스

남원시의회, 국립의학

전문대학원 유치지원특위 구성

남원시의회의장 전경기는 지난 15일 개최한 제255회 정례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인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기원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 소태수·김길수·염봉섭·오동환·김정현·이숙자 의원을 선출 이틀 의원 8명은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내 기초의회 의정활동 본격화

무주군의회 정례회 개최

내달 15일까지 30일간

내년 예산·올 추경 등 처리



개회사를 하고 있는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가 16일 제 296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12월 15일까지 30일 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상정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일정으로는 회기 첫 날인 16일 본회의를 개의하고,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8일 조례안, 동의안 등 상정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29일부터는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며 13일 군정질문이 실시된다.

마지막 날인 15일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 및 2023년도 예산안 의결 후 폐회하게 된다. /무주=전문성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예산·추경 심사 등 진행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회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6일 개최해 다음 달 16일까지 31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첫째 날인 16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실·과·관·소별 2023년도 시책업무 보고 주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다.

또한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실·과·관·소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12월 16일 제9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35건의 의안을 회부안건으로 상정했다. 운영위원회는 박성만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작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조규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결산사무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임종훈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9건을 심의한다.

임정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정례회인 만큼 군정질문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심의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대책 마련과 산물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성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형숙박시설 건립이 시급하다"고 발언했고, "신림면 반룡 농협 등사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과 연계하여 등사 부지에 연수원 건립"을 제안했다. /고창=김경식 기자

손 씻기 ·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